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9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7호

2012년에 제1야당 된다

2004년 원내진입, 2008년 교섭단체, 2012년 제1야당

대통령선거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언론개혁에 가장 앞장서는 정당.
노무현측에서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

≪아직 공식적으로 천명은 안했지만 저는 대선에 출마할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선출 절차에 반드시 뛰어들 것이고, 거기서 후보로 선출된다면 범진보진영 내 ≪예비경선≫에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범진보진영의 대선 단일후보로 선출되고 싶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번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소극적인 ≪출마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대표는 ≪왜 자신이 진보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 나라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인 헌신성, 개척자 정신, 통합력, 국제적 감각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후보는 무엇보다 통합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남북한 간 통합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노사 간 통합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노사문제, 노동문제를 너무 축소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4년만다 독일 노총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텔레비전에서 생방송합니다. 그것은 독일 노총의 입장이 국가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연맹 위원장은 국가의 3대 지도인물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국제적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예속경제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식인, 사회운동가들이 이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자유주의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적 흐름을 너무 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권영길 대표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권 대표도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긴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라며 굳이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민주노동당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이른바 ≪신비판적 지지론≫(사실상 노무현 지지론)이다. ≪말≫이 권영길 대표를 만나고자 한 이유도 이 문제와 관련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인터뷰는 지난 1월 28일과 2월 6일 이틀에 걸쳐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미 대선정국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TV토론, 인터뷰 등이 한창인데, 대표님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이 각 방송사, 신문에 나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치철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든 대통령 자리에 앉기 위한, 그런 몸짓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 대통련 선거가 끝나더라도 다음 정권이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치철학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IMF이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정확히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IMF사태는 썩은 보수정치, 황제식 재벌경영체제가 내적인 원인이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서민들은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던져줘야 합니까. 대선주자들은 말로는 ≪정치개혁≫을 떠들지만,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체제 해체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민주노동당
1 2012년에 제1야당 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4)

세기와 더불어
4 4장 1절 손정도목사 (2)

칭송
5 잊을 수 없는 밤 (1)
5 위대한 투사 **김정일**
5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2)

한국민족민주전선
6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
6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7일
7 악의 본축을 단죄한다

광고
16 6.15주간 제37호

조선중앙통신
8 주체91, 3월 7일 보도
9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이자 – 사설 주체 91, 3월 7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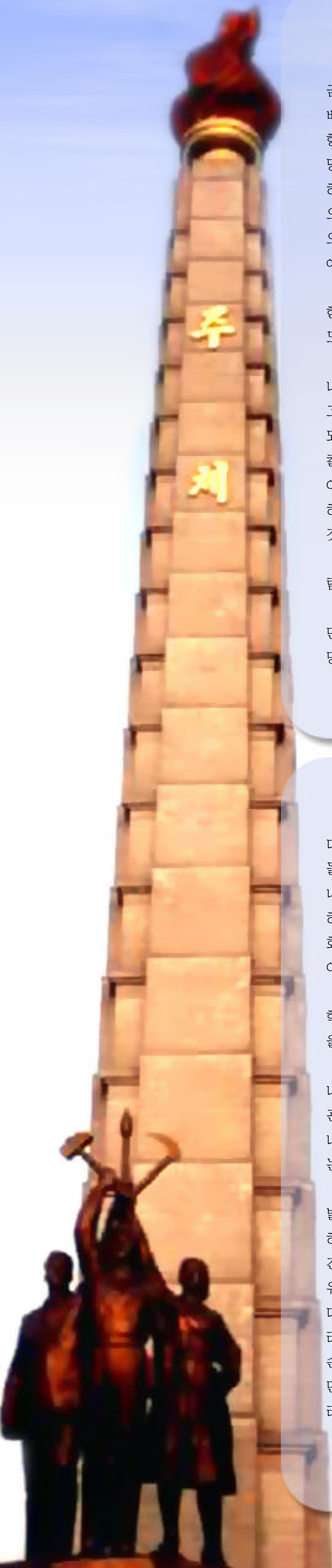
아리랑뉴스

12 교육학생연대, 교육재정확충 교육시장화저지 요구
12 F-15K 도입은 짜고치는 고스톱
13 평양이 먼저 제네바합의 파기 안한다
13 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 미군기지반환촉구 연대집회
13 발전노조 파업에 연대를 조직하자
14 2012년에 제1야당이 될 수있다
14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

운동강좌
15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4)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4)

주체67(1978)년 11월 18일



미국은 우리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지금도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있는 당사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정책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언제나 민족자주적 입장을 지킬 것이며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남이 예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의 이익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혁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언제나 그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덕신선생은 이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지만 최동오선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도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고려공산당이요 무슨 공산당이요 하면서 감자도장을 새겨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데 누가 승인하고 말고 할 것이 있는가고 비웃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위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으며 앞으로도 우리 식대로 나라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무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조선의 애국자들이 인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배양하느라고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도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던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적극적인 투쟁은 못되지만 투쟁형식은 좋았습니다.

해방후 우리 북반부에 큰 방직공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청년들에게 무명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날론천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천을 자체로 생산하여 좋은 옷을 해입고 있습니다. 비날론은 이승기박사가 해방전에 일본에 있을 때부터 연구한 것입니다. 그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쓴 비날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베를린도서관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해방후 남조선으로 갔는데 남조선집권자들은 그에게 과학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장군님의 품속에서 민족을 위해 복무하겠으니 받아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는 북반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나는 전쟁시기에도 압록강연안에 연구소를 지어놓고 그가 연구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후에 나는 이승기박사를 만나 연구결과를 알아보고 함흥에다 비날론공장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과학원 함흥분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은 2. 8비날론공장을 돌아보고는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승기박사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비날론을 만들어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는데 공업을 주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료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그 나라들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일없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목덜미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료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전에 일부 사람들은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는 것이 좋기는 좋다, 그러나 원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였다가 무슨 일이 생겨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유화학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원유가 나올 때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세계적으로 연료위기가 조성되어 원유값이 올라가고 미국, 일본, 서부독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경기로 아우성을 치게 되자 그들이 나에게 수령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주체공업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다 망할 뻔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에서 주체화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에게는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석탄과 석회석이 몇백년 캐먹을 수 있을 만큼 무진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의 것을 사랑합니다.

선생이 앞으로 자주 오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상점들에 가보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에 일본상품배척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상품을 송화강에 처넣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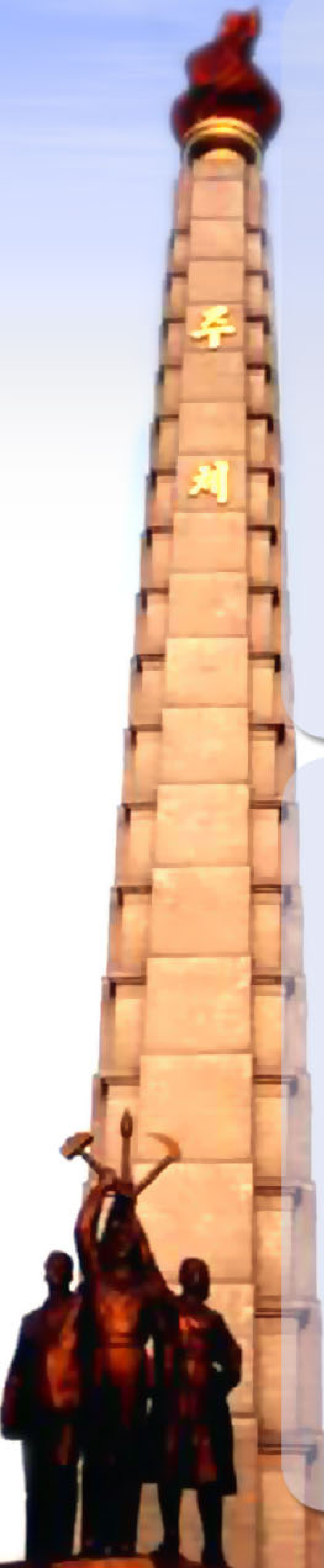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 상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일부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있지만 인민들의 소비상품은 다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한 것입니다. 조선속담에 아이는 제 아이가 곱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상품이 질은 좀 낮아도 제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기 나라의 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왜 찬양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외국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것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그 무엇을 보나 러시아식, 중국식이 전혀 없고 다 우리 식입니다.

일부 나라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에 대한 좋은 글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신문에는 우리에 대한 글이 나가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

미국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줄 돈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을 돈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한 글을 내는 것은 다 사상적 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일본화, 서양화되어 사람들이 조선말과 일본말, 서양말을 마구 섞어쓰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를 하다보니 조선사람들이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총련의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우리 동포들이 비록 몸은 일본에 있어도 동화되어 일본사람이 되지 말고 조선의 넋을 가진 조선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받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그 어디에 내놓아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이 되어도 절대로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앞으로도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중립적이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 것입니다.

미국지배층의 견해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미국사람들이 우리 인민과 철천지 원쑤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미국인민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이라는 인상을 가지지 않고 조미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인 것만큼 미국이 지난날 우리와 전쟁을 했다고 하여 영원히 우리의 적대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일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을 예속국으로 틀어쥐고 있으려 하지 않으며 조선이 통일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미국과 틀릴 조건이 없으며 미국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분단국가로 유지해나가려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카터가 미국대통령으로 올라앉은 다음 1년반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카터가 선거공약에서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고 또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우리 나라에 대한 내왕도 허락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 군사장비를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원조≫도 계속 주었습니다. 카터는 ≪서거공약≫에서 인권탄압을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박정희군사파쇼독재정권을 계속 비호하였습니다.

카터가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서는 떠들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비-52≫전략폭격기가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는데 대해서도 한동안 가만있다가 올해에 미국과 남조선이 ≪한미연합작전훈련≫을 한 다음에야 ≪철군≫을 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작전훈련≫이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이래 처음 있은 대군사연습이라고 때렸습니다.

미국에서 카터가 대통령으로 올라앉은 후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비-52≫전략폭격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구실밑에 한달에 1~2번씩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도 군인출신인 것만큼 잘 알고 있겠지만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 비행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오끼나와에 있는 폭격기가 폭격연습할 곳은 오끼나와비행장 근방에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남조선의 아산만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전번에 내가 일본잡지 ≪세까이≫편집국장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남조선사람들에게 현 ≪정권≫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자는 것이며 또 우리도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사람들이 박정희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협하지만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파쇼독재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있으면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과거 봉건사회가 이 법칙에 의하여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이 법칙에 의하여 망해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이 법칙에 따라 혁명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쇼가 심하던 에스파냐에서도 인민들이 투쟁한 결과 파쇼독재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에게 무기를 많이 대주어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무기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기를 대준다고 하여도 인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쓰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지금도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있는 당사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정책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언제나 민족자주적 입장을 지킬 것이며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남이 예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계속)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1. 손정도목사 (2)

손원태는 서방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주석님께서 퍽그나 정정하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허물없이 끌어당기더니 한참동안 내 손금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몹시 어리둥절했다.

≪명금이 이토록 좋으시니 필시 만년장수하시겠습니다. 대통령금까지 이렇게 뚜렷하니 나라의 수령으로 높은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올시다.≫

손원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손금을 보아주는 사람도 난생 처음 보았고 사람의 손금가운데 대통령금이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들었다. 손원태가 나의 손금을 보아주면서 명금이 길다고 한 것은 나의 장수를 축수하는 심정의 표현일 것이며 그가 대통령금이 뚜렷하다고 한 것은 우리의 사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 것이다. 손원태는 한 나라의 수반과 회견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은 조금도 없이 나에게 이런 청까지 하였다.

≪주석님, 언제 나에게 ≪쨩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길림에 있을 때 주석님과 함께 들던 ≪빙땅훌루≫도 먹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형제간이 아니고서는 꺼내기 어려운 요구를 그가 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정말로 나를 친형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였다. 손원태가 형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불쑥 내 머리에 떠올랐다. 손원태의 형 손원일은 한때 남조선에서 국방부장관까지 하다가 몇해 전에 고인이 되였다.

내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 손원태를 대접한다고 하여도 손원일이 자기 동생을 보살펴준 그 사랑의 높이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였다.

그러나 ≪쨩즈궈즈≫나 ≪빙땅훌루≫가 먹고 싶다는

손정도목사

그의 소원이야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쨩즈궈즈≫란 콩국과 기름에 튀긴 과배기 비슷한 중국음식이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손원태와 손인실을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에게 ≪쨩즈궈즈≫를 몇 번 사준 적이 있었다. 내가 ≪쨩즈궈즈≫를 사줄 때마다 어린 두 남매는 그것을 여간 맛있게 먹지 않았다. 손정도선생한테 진 신세를 생각하면 사실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먹이고 싶은 것이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그러나 내 수중에 있는 돈은 학비도 변변히 댈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나는 손원태가 ≪쨩즈궈즈≫를 정말로 먹고 싶어 그런 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쨩즈궈즈≫라는 한 마디의 말로 우리들이 친형제나 친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던 길림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을 뿐이다.

≪≪쨩즈궈즈≫가 먹고 싶다면 다음 번에 해주겠소.≫

손원태는 롱삼아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말로 ≪쨩즈궈즈≫를 해먹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다음 번이 아니라 당장에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느끼였다. 그가 나에게 언제 ≪쨩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허물없는 말을 한데서 나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틀후 우리 료리사들이 만든 ≪쨩즈궈즈≫가 손원태부부에게 전달되였다. 조반 전에 그 음식을 받은 손원태는 김주석님덕분에 어린 시절에 즐겨먹던 ≪쨩즈궈즈≫를 먹게 되였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였다고 한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로쇠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변질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1930년 여름 길림을 떠날 때 올랐던 북산공원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였던 우리의 우정은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 길림시절에 부르던 ≪사향가≫도 합창하였다. 놀라운 일은 나도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였다. 손원태는 민족을 위해서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기때문에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였다. 그는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 감찰부장으로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일화배척운동에도 뛰어든 애국청년이였다.

이것은 훗날 그를 나가사끼감옥으로 끌어가게 한 근거로 되였다.

한평생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의 모습에는 길림시절의 그 깨끗하고 순진한 품격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아니면 너라는 생존경쟁의 풍토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원태는 우리가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고상한 나라, 후손들을 위한 건설의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나는 때늦게나마 손원태가 우리를 찾아와 길림시절을 회고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로 넘치는 손원태의 모습은 그대로 손정도의 모습이였고 손인실의 모습이였다. 그는 나를 만날때마다 ≪주석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하고 말하군 했다. 나의 건강을 충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손정도목사의 모습을 방불케하였다. 그날 손목사는 나를 배라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세가 삼엄한 것만큼 길림에는 더 있지 말아주게. 이고장 형세가 이만저만 흉흉하지 않아.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어디 가서나 신변을 주의해야 하네. 간도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벽촌에 숨어서 정양을 하는게 좋겠네.≫

나는 나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다심한 인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손목사의 조언이 얼마나 시기적절한 것이였는가 하는 것은 9.18사변 후의 만주정세가 웅변으로 증명해주었다. 길림을 점령한 일본군경은 그때 나부터 찾았다.

그들은 길림감옥의 명부를 뒤지면서 군벌들에게 김성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손정도목사를 비롯하여 고원암, 오인화, 황백하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의 후원으로 감옥에서 제때에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붙잡혀 10년 쯤 옥중생활을 더 하였을 것이다. 10년만 철창속에 더 갇혀 있었더라면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손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리유에서이다.

길림시절 나를 도와주고 나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을 헤아리자면 실로 끝이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최만영, 오상헌, 김기풍, 리기팔, 최일과 같은 전 세대의 운동자들도 있었고 최중연, 신영근, 안신영, 현숙자, 리동화, 최봉, 한주빈, 류진동, 최진은, 김학석, 우석윤, 김온순, 리덕영, 김창술, 최관실, 류수경과 같은 동년배의 선각자들도 있었으며 리동선, 리경은, 윤선호, 황귀헌, 김병숙, 곽연봉, 전은심, 안병숙, 윤옥채, 박정원, 곽기세, 정행정과 같은 애국소년들도 있었다.

나는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길림에 더 머물러 있을 형편이 못된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감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했던 바였다. 손목사는 자기 집에서 나를 보양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권고를 고맙게 받아들인 나는 점심을 한끼 대접받은 후 인차 신안툰으로 향하였다.

(끝)

일화

잊을 수 없는 밤 (1)

1967년 8월 5일이었다. 그무렵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민중을 위해 한몸바쳐 싸우는 일당백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해 군부대들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영도자님께서 이날 오후 동해안의 한 연합부대를 찾으시였다.

그 부대의 부대장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키워오신 오랜 투사였다.

부대안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전투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그분께서는 부대지휘관들과 소박한 저녁식사를 나누시고나서 부대장을 데리고 숙소로 가시였다. 그분께서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나 좀 하자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화제를 꺼내시였다. 국제정세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다보니 밤이 퍼그나 깊었다. 이야기에 심취되어 있던 부대장은 먼길을 오신 그분께서 피곤해 하시리라는 것도 생각 못하고 한정없이 앉아있은 것을 자책하면서 서둘러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제는 밤이 깊었는데 여기서 같이 자자고 하시면서 서로 일이 바쁘다보니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부대장은 한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사실 부대장은 4년전에 한전연구분대에서 그분을 모신 일이 있었는데 그후로는 처음이였다.

그분께서는 무척 기뻐하는 그에게 넓은 침대를 내주시고 자신께서는 좁은 침대에 자리를 잡으시였다. 딱하게도 그 침실에는 넓은 침대와 좁은 침대가 각각 하나씩 뿐이었다.

부대장은 영도자님께서 넓은 침대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황망히 간청했으나 그분께서는 나이 많은 분이 좁은데서 자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굳이 넓은 침대로 이끌어다 앉혀주시었다. 부대장은 딱하게 되었다. 불원천리하고 찾아오신 그분을 어찌 좁은 침대에 모시랴 싶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로 권하고 서로 사양하여 좀체로 낙착이 안되는데 결국 그분께서 두 침대를 다 그만두고 바닥에서 같이 자자는 명안을 내놓아서야 일이 풀렸다.

그리하여 부대장은 응접실 바닥에 그분과 한이불을 덮고 나란히 눕게 되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그밤 부대장은 일제놈들에게 일가친척을 다 빼앗기고 12살 어린 나이에 **김일성**주석님의 품에 안겨 자라온 지난날의 가지가지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그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신듯 이야기나 좀더 하다가 자자고 하시면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무슨 훈련이 제일 힘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백두의 원시림 속에 자리잡은 훈련기지에서 군정훈련을 다그치던 나날이 어제일같이 선히 떠올랐다. 그때 훈련기지에서는 강행군훈련, 전술훈련, 사격훈련, 무선훈련, 스키훈련 등 여러가지 훈련이 맹렬히 진행되었는데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그에게는 무선공학에서 배우는 무슨 법칙이요, 원리요 하는 것들이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송수신훈련도 여간 애먹는 일이 아니었다. 전술훈련이나 스키훈련 같은 것도 조련치 않았다. 그때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여사께서 원쑤 일제를 때려부수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겠다는 강심을 먹고 달라붙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고 하시며 도와주는 바람에 훈련의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다.

(내일 계속)

송시

위대한 투사 김정일

유리 카스트로 로메로(페루)

항일전의 포성이 장엄하게 울리던
40년대의 백두산에서
소년장군 탄생하시어
산천초목도 감격에 목메어
환호성을 터뜨렸더라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의 불바람 속에서도
언제나 두려움 없이
아버님을 도우시며
혁명의 한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소년장군 **김정일**
사회주의 길만이
굶주림과 빈궁을 없애고
만민의 평등 이룩하는
가장 정확한 길임을 밝혀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참다운 사회주의 조선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수령님의 혁명위업
믿음직하게 계승하시거니
아… 위대한 투사 **김정일**동지를
인민들은 충성의 한마음 담아
높이 높이 받들며 따르리라

흠모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2)

마다가스카르 안찌라베 **김일성**서점 책임자 라나부쏘나 필립뿌

제2장 **김정일**동지의 영도력

ㄱ) 영도예술의 대가

김정일동지는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시는 영도의 영재이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영도로 주체시대를 끝없이 빛내이고 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매우 박식하시고 당, 국가 사업 그리고 인민들의 일상 생활과 문화휴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정통하고 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영도예술로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옳게 반영한 구호들을 제시하시어 인민대중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창조적 열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며 거기에 비상한 열정과 정력을 쏟아 부으신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라는 구호는 그 대표적 실례이다.

그이께서는 당과 대중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로 이끌고 계신다. 이 운동의 정당성은 이 운동이 나온 후 거둔 성과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모든 생산공정이 기계화, 자동화, 현대화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중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많은 혁명적 구호들을 제시하시었다. 대표적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를 들 수 있다.

김정일동지의 이와 같은 영도력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가져왔다.

그이의 능숙한 지휘에 따라 모든 사업이 급속히 진척되고 있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생산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고 은율광산에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일떠섰으며 평양에는 새로운 거리들이 연이어 일어섰다. 광복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조선은 수도의 모습을 완전히 전변시켰다.

참으로 휴식을 모르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영도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ㄴ) 조선은 희망이 넘친 나라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의 운명을 책임진 영도자의 품격에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의 미래를 개척하시며 그를 승리에로 이끄신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아래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 있다.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 세련된 영도예술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계신다. 주체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것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행동강령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의 기치아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시며 사회주의 건설을 지휘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앙양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의 미래는 참으로 휘황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또 한 분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어 가신다.

참으로 **김정일**동지는 가장 위대한 영도자의 한 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반드시 이룩하실 것이다.

(끝)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6일~8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올들어 1월 3일 민주노총은 전농과 한총련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운동단체들과 함께 2002년을 진보진영의 대단결로 자주민주통일의 희망의 해로 만들자고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했는데요.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운동에서의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라는데 관해서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지금 관계당국이 노동운동권안에 쐐기를 받고 각계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결을 차단하려고 발악하는 여건에서 노동자대중은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노동운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대연합이 왜 운동승리의 담보로 되는가 하는 건 지난 시기 여러 계기를 통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자고 합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서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단결해서 운동으로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승리를 이룰수 있다는 건 역사가 가르치는 철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승리의 대전제는 단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계층, 더 나아가서 각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추진시켜 함께 뭉쳐 싸우는 것이 운동승리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옳은 문제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로부터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내로라해도 혼자서는 아무 일도 잘 해낼수 없다는 얘기죠. 사회 각계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단결을 추진하는 것이 대중운동승리의 담보로 된다는 걸 다시금 생각케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연대연합을 강화하는건 오늘 노동운동발전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현시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날을 따라 폭력적이고 악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공안당국은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검거선풍을 일으키며 노동운동지도부와 그 핵심들을 제거하려고 책동했습니다. 효성 울산공장을 비롯한 여러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유혈적인 탄압을 가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집권당국이 노동운동을 고립시켜 말살하려는 여건에서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투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운동이 각계층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다시말해서 권력과 자본이 합세해서 노동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해 나서고 있는 여건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투쟁에서 목적을 달성하자고 해도 노동자뿐만 아닌 각계 민주애국세력과 연대연합을 해서 자기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거죠.

김현규 :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운동에서 각계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 활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무시할수 없는 겁니다. 부시의 방한저지 투쟁에서도 마땅히 노동자가 주력으로 나서야 했지만 민중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도 있고 통일운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통일의 기관차로 약동하는 노동자계급이 각계 민중단체와 손을 잡고 호흡도 같이하고 발걸음도 맞춰야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현시기 노동운동이 각계층의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해서 투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힘차게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규 : 그에 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제 생각은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이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대중이 지지하고 참가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즉 노동운동은 자기 타산의 독자적인 투쟁이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위한데 더 큰 관심을 갖고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보다 강화해나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천투쟁속에서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그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생존권쟁취를 비롯한 노동운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노동운동승리의 담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노동자대중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주도세력으로 나설걸 요구하는 현실의 요청을 명심해야 할거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현실의 요청은 우리 노동자대중이 각계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해 전반적인 대중운동을 보다 힘있게 추진해나갈걸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자대중이 자기들의 생존권투쟁에만 집착하면서 우리 민중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쟁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수 없게 됩니다. 조직력과 투쟁력, 결단성이 있는 노동자대중이 전반적 대중운동에 뛰어들어 각계층 운동단체들과 어깨겯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면 승리는 확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의 새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대중은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라는걸 다시금 명심하고 노동자호상간, 지역, 산별간, 노동운동단체간과 국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연합에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러하겠지만 노동운동에서도 승리는 연대연합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형제들은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 민주, 통일실현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7일

민간통일운동참가탄압규탄 공동선언실현 결의대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주최로 민간통일운동참가탄압규탄 및 6.15남북공동선언실현 결의대회가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 연사들은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참가자들의 방북을 불허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국방부가 북을 주적으로 삼고 통일부가 선별잣대로 민간교류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연사들은 6.15공동선언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단결로써 엄혹한 역사를 뚫고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회장소에는 ≪주한미군철수가≫, ≪반이회창가≫ 등의 노래들이 울려나와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됐습니다.

결의문은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의 끊임없는 방해에 굴복한 통일부가 민간통일운동대표들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발생된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결의문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이 북에는 적대시정책과 남에는 내정간섭으로 6.15공동선언실현을 방해해왔으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제동을 걸어온 사실들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에도 과감히 맞서 민족대단결운동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며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기초로 삼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해 마침내 조국통일을 실현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프15전투기 규탄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부시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에프15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규탄해 지난달 28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부시가 한국행각과정에서 또다시 북을 악으로 묘사하며 노골적으로 남북대결을 부추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선제공격기도를 드러낸 부시정권은 지속적인 세계 패권 추구와 자국 경제위기 탈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부시정권의 바로 이같은 야수적 탄압의 첫번째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따라서 우리 민족은 남북공조를 통해 부시정권의 한반도전쟁책동을 막고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수호해야할 사명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 에프15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공격용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남북간 대결을 부추겨 부시정권의 전쟁책동을 방조하는 것으로 되며 종국에는 전쟁을 불러옴으로써 우리 민족의 삶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국방부가 내세우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도입책동은 대북동시타격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하여 민족공조보다 군사적 대결을, 방어보다는 공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악의 본축을 단죄한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주체91, 3월 4일~6일

지구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있다. 선을 찬양하고 악을 참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에서 선은 누구이고 악은 과연 누구인가.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강도가 주인을 보고 강도라고 몰아붙이는 격의 파렴치하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반세기이상의 북미관계사를 엄정히 투시해볼때 순간마다 악행을 저질러온 장본인은 언제나 미국이였고 그로인해 헤아릴길 없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바로 이북이였다.

나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전문하는 사가로써 부시의 망언에 대한 분격을 누를길 없어 역사의 진실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자 한다.

1. 살인마 미국

미국의 대외관계사가 항용 그러하듯이 북미관계의 서막도 피로 얼룩져 있다.

미국은 수립된지 2년도 안되는 이북을 요람기에 강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악의 제국이다.

6.25전쟁을 통해 미국의 야만성은 낱낱이 드러났다.

***주민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 이것이 이북에서 미국이 진행한 진짜 전쟁이였다.

개전초기 미8군 사령관이였던 워커는 수하 장병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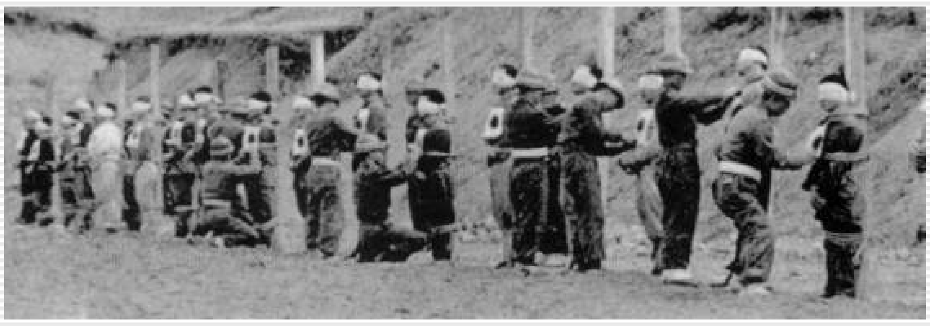
≪닥치는 대로 죽여라. 설사 그대들앞에 나타난 것이 어린이나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그대들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조선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미국시민으로써의 임무를 다하라.≫

상부의 특명으로 합법화된 살인교리에 따라 미군장병들은 일시적으로 강점한 이북에서 귀축같은 만행을 자행했다.

미군은 평양에서만도 1만5000여명의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했다. 그중에서 2000여명은 평양감옥마당에서 한꺼번에 총살했다. 1950년 12월 4일과 5일에는 대동강다리를 폭파하여 4000여명을 죽였고 사리원, 해주 공해상에서는 기총사격과 폭격으로 3만여명을 몰살시켰다. 그리고 신천군에서는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5380여명, 안악군에서는 1만9072명, 은률군에서는 1만3000여명, 풍산군에서는 5290여명, 해주시에서는 6000여명, 남포시에서는 1511명, 강서군에서는 1561명, 안주시에서는 5000여명, 산천군에서는 1400여명, 철원군에서는 1560여명, 대천시에서는 1342명, 사천군에서는 1400여명, 통화군에서는 5545명을 학살했다.

미군이 이북을 일시강점했던 50여일 기간에 살해한 주민수는 무려 180만에 해당된다. 이것은 하루평균 2만여명을 학살한 것으로 된다. 파쇼살인마로 악명을 떨친 히틀러는 ******과 같은 수용소에 화장터를 차려놓고 매일 수천명씩 무리로 죽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에서 매일 그 수십배를 죽였다. 미국이야말로 히틀러도 경악할 살인악마이다.

미국이 이북에서 감행한 살인만행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 ****의 이북 주민들은 미군야수들에 의해 중세기적인 악행을 받으며 총살됐다. 미군은 이북강점시 체포한 사람들을 노동자본이라고 해서 눈알을 뽑고 심장을 도려냈으며 사지를 찢어 죽였다. 어떤 농민은 머리에 못을 박고 톱으로 쳐서 죽였으며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쇠줄로 코를 꿰어 끌고다니다가 학살했다. 수많은 여성들을 능욕하고 젖가슴과 국부를 도려내어 살해했다.



1952년 3월 3일부터 19일까지 이북 지역에서 미군이 감행한 만행을 조사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은 조사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여성들과 아동들을 포함한 조선 일반 주민들에 대하여 미군 군부들이 범한 대량적 및 개별적 학살과 야수적 행동의 증거는 감행된 범죄의 양에 있어서나 또한 그 자행된 방법의 자행성에 있어서 전례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북미관계사의 서막이다.≫

부시는 9.11대규모습격사건을 통해 악마를 보았다고 했다. 하다면 그는 6.25전쟁시기 이북에서 미군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부시는 테러로부터 선과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외쳐왔다. 하다면 그는 미군의 야만적 폭격으로 잿더미된 이북의 3700여개의 성당들과 5000여개의 학교, 1000여개의 병원들과 260여개의 극장 및 영화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미국은 얼굴을 숙이고 붉혀야할 필요가 있는 나라이다.≫

*****. 북미관계의 서막은 미국이야말로 선이 아니라 악의 원흉이고 화신이라는 것을 피로 고발하고 있다.

2. 최대의 테러국가

부시는 이북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고 있는 악의 축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역사는 대량살상무기로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웅변해준다. 미국이 6.25전쟁중 원자탄사용을 지적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휴전후에도 미국은 이북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감행했다.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압살정책으로 인해 이남은 핵의 최대기지로 화했다.

이북에 가해지는 미국의 최대위협은 핵위협이다. 헌데 이남에는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다. 군산 미공군기지는 핵무기의 중심적 저장기지로써 수백발의 핵폭탄과 핵**, 핵지뢰 등이 콘크리트 원형창고에 쌓여 있다. 뿐 아니라 24시간 비상대기상태에 있는 에프16전폭기들로 구성된 공군비상전투폭격기 부대가 임의의 순간에 발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북은 미국에 의해 150평방 킬로미터당 1발, 2만여명당 1개의 핵참화를 겪어야할 가공할 위험에 직면해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금 이북을 겨눈 미국의 핵전력은 이북민중을 몇십번 멸족시키고도 남을 양이다. 이것이 부시가 떠드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의 진상이다.

미국은 핵무기외에도 각종 무력과 최첨단살인병기로 이북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침을 노린 미군의 전력에는 근 4만명의 주한미군외에도 미본토의 무력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미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북침시나리오인 ≪5027-98≫작전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전쟁때에 69만명의 병력, 5개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1600여척의 함정, 1600여대의 항공기를 투입하려고 획책한다. 이것은 만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이 ***의 전쟁에 동원한 병력을 훨씬 웃도는 최대규모이다. 지구촌의 어느 나라도 이처럼 방대한 침략무력의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가 없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정치경제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북에서 벌어졌던 고난의 행군도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의 산물이다.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한다. 그러한 미국이 자기 영토의 대략 74분의 1,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이북을 반대해 자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살정책으로 하여 이북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상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차단당하고 모든 것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만약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없었더라면 이북은 이미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경제강국의 전열에 들어섰을 것이다.

잔인무도한 대북정책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지구상에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죄악의 씨앗이다. 미국은 의심할바 없이 이북의 군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방면으로 테러를 가해왔고 이 시각도 가하고 있는 최대의 테러국이다.

북미관계의 50여년사는 명명백백히 보여준다. 악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악의 본축이고 복마전이며 원흉이다. 부시의 망발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거꾸로 된 논리이고 기만이다. 아울러 그것은 일방주의를 표방하는 부시미행정부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며 미국식가치관의 극치이다.

이 세상에 미제국주의가 있는한 악의 근원은 없어질수 없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나는 각계 민중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 민족의 간악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해 가차없는 성전을 벌이자. 부시 미행정부의 무모한 대북압살정책을 산산히 짓부셔버리자.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7일

≪경축의 밤≫행사 부산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남조선의 부산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2. 16경축준비위원회가 ≪경축의 밤≫행사를 가지였다.

행사에서는 뜻 깊은 명절을 축하하는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있은 다음 ≪통일의 태양을 따릅니다≫, ≪**김정일**세상이 온다≫등 10여편의 시가 랑송되였으며 ≪**김정일**장군의 노래≫, ≪2월은 봄입니다≫,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 노래들과 북극성메아리악단에서 형상한 노래 ≪통일의 장군≫, ≪태양찬가≫ 등 10여편이 연주되였다.

전쟁피해자들의 증언 청취 미군만행진상조사단

미군만행진상조사단 성원들이 6일 평양의 국제문화회관에서 전쟁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발언자들은 구체적인 사건, 사실자료들을 들어 가며 미국의 조선침략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들은 미제침략군의 치 떨리는 만행에 의하여 사랑하는 혈육들을 잃고 원한의 상처들을 입은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살인마, 승냥이들이라고 규탄하였다.

조사단 단장인 미국 ≪평화를 위한 로병조직≫ 대표 브라이언 윌슨은 북과 남의 인민들의 증언을 듣고 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세계면전에 폭로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의무로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들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은 미군이라고 하면서 이는 세계에 널리 알려 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참관 꾸바대사관 성원들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의 조선방문 16돐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꾸바공화국 대사 에스떼반 로바이나 로메로와 대사관 성원들이 6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혁명실록실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돌아 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대사는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세계 혁명가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 쥐고 강성대국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꾸바와 조선 두 나라는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한 전호속에 언제나 함께 서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외장재연구소 강계시

조선의 북단 자강도 강계시에 외장재연구소가 새로 나왔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조선에 흔한 원료와 자재로 생산할수 있는 색감들과 점착재료 등을 연구하게 된다.

색감연구실과 점착연구실, 실험실 등으로 이루어 져 있는 연구소에서는 건재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한 경험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새 세대 건재전문가들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여러가지 질 좋은 외장재들을 연구해 내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

개성고려인삼

개성고려인삼은 세계에 널리 알려 져 있는 조선의 특산이다.

조선의 옛 국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되여 왔다고 하여 그 이름도 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 부른다.

이 지방의 특이한 토질과 수질, 고유한 기상학적요인과 독특한 재배, 가공방법 그리고 특수한 약효과로 하여 고려인삼제품들은 대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고려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홍삼, 백삼, 당삼으로 나눈다.

고려인삼은 인체내의 5장을 보호하고 뇌, 심장, 혈관계통에 좋은 영양을 미치며 내분비선을 자극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특히 최근년간 개성고려인삼의 항방사능, 항암작용이 새로 밝혀져 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선에서는 인삼으로 고려인삼감초간염단알약, 고려인삼알약, 인삼대보알약, 인삼찔광이건위단물약, 인삼정액, 인삼주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약재들과 술, 차, 사탕, 과자 등을 만들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널리 리용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 선별탄압규탄 및 6. 15선언실현 결의대회

보도들에 의하면 6. 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련대(통일련대)의 주최로 ≪민간통일운동 선별탄압규탄 및 6. 15남북공동선언실현 결의대회≫가 2일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통일련대≫소속 회원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리종린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6. 15공동선언이 7천만 겨레, 전 세계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6. 15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며 단결로써 엄혹한 력사를 뚫고 전진하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에는 ≪통일부≫가 더 이상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대응하며 6. 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범국민적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고야 말 확고한 결의가 표명되여 있다.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는 바로 미국 수리아외무성 부상

수리아아랍공화국 외무성 부상 쏠레이만 하다드는 조선에 대하여 험담을 늘어 놓은 미국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제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락인하였다.

그는 부쉬가 조선에 대하여 ≪테로지원국≫이라느니, ≪대량살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규정하고 조선을 위협해 나서고 있는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결코 힘으로 굴복시킬수 있는 약한 나라가 아니다.

힘은 미국만이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미국이 조선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한다면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 자위적군사력에 의하여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인민과 군대의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그는 수리아인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언제나 서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쉬의 망발 규탄 각국 정당, 단체들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가 아시아지역을 행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걸고 든 망발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부쉬의 험담과 관련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립장에 동감을 표시하며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민주꽁고 진정한 루뭄바주의투사민족운동, 민주꽁고사회주의인민련합, 민주꽁고로동계 시민련합, 민주꽁고－조선친선협회는 공동성명에서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압력도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딸리아인민민주주의통일좌익 전국지도부는 성명에서 미국대통령의 처사는 매우 어리석고 비렬한짓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 세계를 분쟁지역들로, 죽음과 파괴가 지배하는 화약고로 만들려는 자들을 경멸한다고 지적하였다.

끼르기즈스딴주체사상연구소조는 자국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낸 편지에서 조선의 제도변경을 운운한 부쉬의 망동은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며 조선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무모한 행위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가 조선인민앞에 사죄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통일지지 도미니까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하고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며 화해와 단합,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관서팔경

예로부터 조선은 나라의 동부와 서부를 관동, 관서지방으로 불러 왔다. 그리고 관서지방의 이름난 8개의 명승지를 관서팔경이라 하였다.

관서팔경은 수도 평양의 련광정, 평안남도 성천의 강선루와 안주의 백상루, 평안북도 녕변의 약산동대와 선천의 동림폭포, 의주의 통군정, 자강도 강계의 인풍루와 만포의 세검정이다.

이중에서도 대동강의 맑은 물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던지며 바위우에 높이 서 있는 련광정은 그 풍치가 뛰여 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절로 시상이 떠올라 붓을 들게 하였다는 유명한 곳이다. 련광정은 모란봉기슭을 따라 병풍을 친 청류벽과 비단필을 펼친듯 한 릉라도 그리고 이 일대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천하절승을 자랑한다.

관서 제일루 로 불리워 온 백상루 또한 절경이다. 유유히 흐르는 청천강과 한눈에 바라보이는 조선서해, 드넓은 벌, 웅장화려한 안주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백상루는 그 일대의 풍치를 돋구어 주고 있다.

약산동대는 구룡강의 맑은 물결우에 기묘한 모습을 비끼며 솟아 있는 층암절벽과 푸른 숲 우거진 동대마루, 무지개를 이루며 쏟아 지는 폭포로 하여 이채로운 자연경관을 펼친다. 특히 봄철이면 활짝 핀 진달래로 동대마루와 골짜기들을 온통 연분홍색으로 물들이는 특이한 경치는 사람들을 매혹케 한다.

관서팔경은 오늘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이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3월 7일

오늘 이 땅우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격동적인 시대가 펼쳐 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문학예술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길우에 진격의 포성,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자기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할 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시대의 전진에 앞장 서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문학예술은 시대를 선도하는 강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시대의 앞장에서 인민대중을 불러 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떠밀어 나가는데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가치와 사명이 있다.

거대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지펴 주며 시대의 흐름을 거세차게 떠밀어 나가는 문학예술의 역할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이 시대를 진감하고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가 될 때 혁명과 건설이 활력있게 전진한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천만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언제나 혁명의 포성을 드높이 울리며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고무추동하였다. 항일혁명의 눈보라길과 전화의 나날 불 타는 고지들에서, 전후의 빈터우에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자주시대의 문학예술로 새롭게 태여난 우리 문학예술의 전투적인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문학예술의 거대한 위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 진 지난 세기 70년대에 뚜렷하게 과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 주신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영화, 가극, 음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종래의 낡고 뒤떨어 진것이 완전히 타파되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문학예술이 탄생하였다.

1970년대의 문학예술혁명은 전당, 전민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새로운 사회주의대건설에로 힘차게 부르는 총 진군의 드세찬 포성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시대를 선도하는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이 온 나라를 진감하고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 친 1970년대는 우리 혁명력사에 가장 빛나는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로 찬란히 아로새겨 져 있다.

세기는 바뀌고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으며 문학예술에 대한 혁명의 요구도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시대를 선도하는 전위적기치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다시한번 1970년대와 같은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울려야 한다.

21세기에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이다.

오늘의 시대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선군시대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시대의 인간과 사회, 투쟁과 생활 모든것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다.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감정과 정서는 비할바없이 높은 단계에 이르고 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 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문학예술의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선군시대인간들의 사상정신적높이와 미학정서적요구,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새로운 혁명의 포성을 높이 울려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위력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21세기 문학예술혁명은 곧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고난의 행군≫시기 혁명군대에서 창조되고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 새 시대의 문학예술이다.

총대와 함께 문학예술을 백승의 무기로 틀어 쥐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전례 없는 창작적앙양이 일어 나고 선군혁명문학예술이 탄생하였다. 최고사령관의 나팔수가 되여 선군혁명천만리를 앞장에서 종군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은 선군시대문학예술창조의 자랑스러운 전위대이다. 인민군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을 본보기로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선군혁명실록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창조된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천만군민을 영웅적돌파전에로 부르는 혁명의 붉은기, 진격의 나팔소리가 되였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이라는 강위력한 무기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악의 역경도 웃으며 헤치고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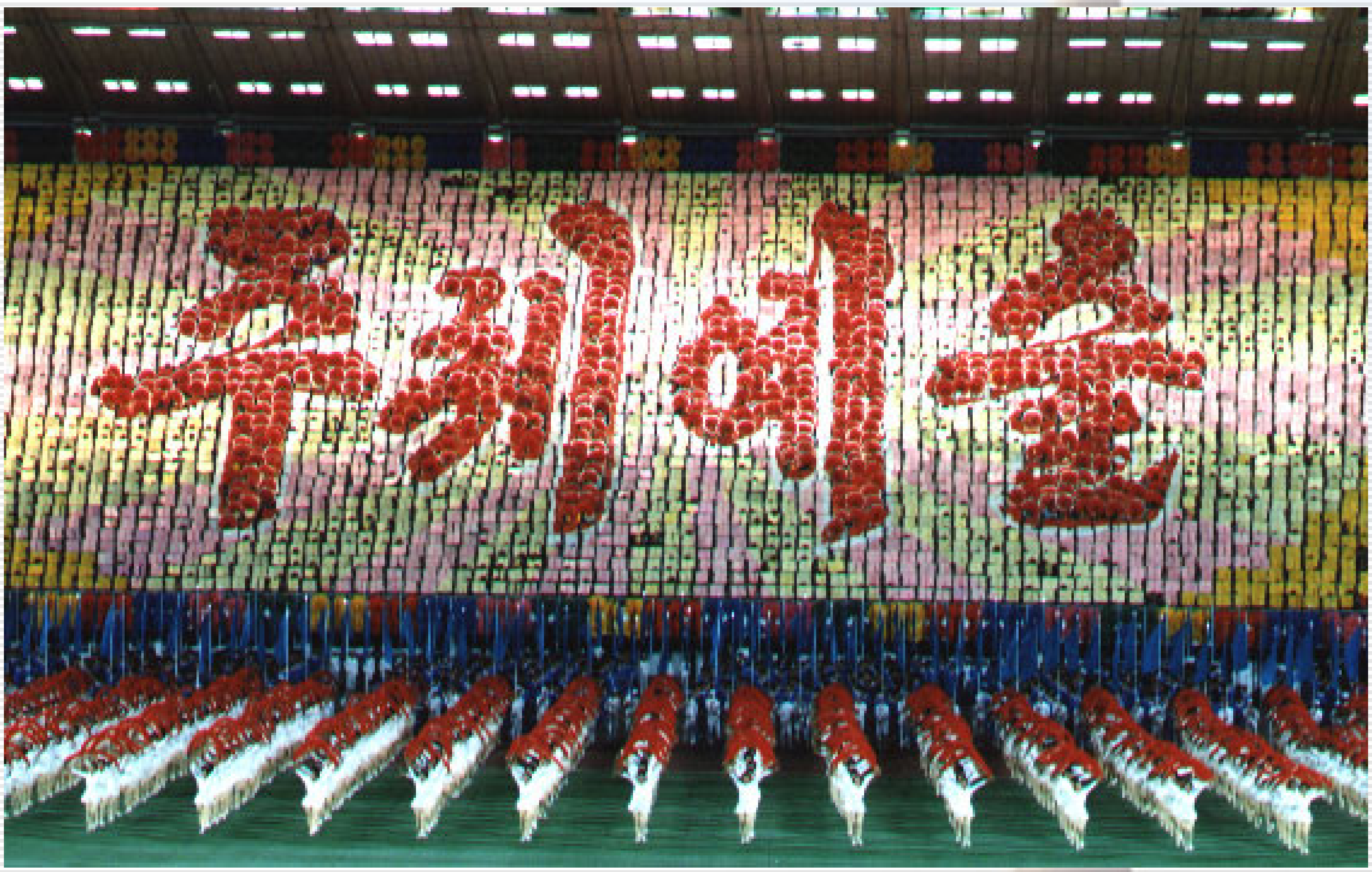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이 끓게 하고 격렬한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이야말로 21세기 주체문학예술의 본보기이다. 문학, 영화예술, 무대예술, 미술, 음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선군혁명문학예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는데 21세기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이 시대를 진감하게 하는 길이 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전당, 전군, 전민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위력한 무기이다.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선군시대에 최상의 높이에 이르렀다. 령도자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것이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인생관이며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군대와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형상원천으로 하고 있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사상적견인력과 정서적감화력은 대단히 크다.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이 높이 울릴 때 우리 혁명대오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백승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 갈것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강성대국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를 시대의 인간전형으로 내세우는데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높이가 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사생결단하여 관철해



나가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오늘의 선군시대에 전 사회적, 전 인민적인 투쟁정신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결사관철의 투지와 용맹이 세차게 맥박치게 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위력이 높이 떨쳐 질때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에서는 끊임 없는 비약이 일어 날것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풍만한 정서로 선군시대를 꽃 피우는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만이 아니라 감정정서까지 본 받으려는것은 선군시대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병사의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동지애, 락천적기백과 혁명적랑만으로 충만된 노래와 춤을 제일 사랑한다. 군대와 인민의 미감에 맞는 명작, 명곡, 명화들이 련이어 쏟아 져 나올 때 온 사회에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적분위기가 차넘치고 우리 조국땅우에는 21세기의 새로운 문예부흥이 펼쳐 지게 될것이다.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문학예술인들이다. 사람들에게 투쟁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필승의 락관을 심어 주는 혁명적문학예술인들이야말로 선군시대를 꽃 피워가는 자랑스러운 기수이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마땅히 오늘의 시대적부름에 피 끓는 심장으로 호응해 나서야 한다.

새로운 창작성과로 21세기를 거창한 창조와 풍만한 부흥의 년대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군대와 인민을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데 격동하는 선군시대와 함께 숨 쉬는 문학예술인들의 영예와 긍지가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것이다.

1970년대 문학예술혁명이 인민들속에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활화산같이 분출시킬수 있은것은 수령형상창조를 주체문학예술건설의 핵으로 틀어 쥐였기때문이다.

백두산3대장군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주체문학예술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첫째 가는 과업이다.

선군시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새 세기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창조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선군의 기치 높이 주체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장이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고 끝 없는 열망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철의 담력과 배짱, 무한한 정력으로 시대를 이끄시며 뜨거운 인덕으로 선군시대 사랑의 화원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장으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진실하고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60성상의 장구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려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인들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백두산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때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에 떨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위훈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새 시대 인간의 본보기형상을 창조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를 안겨 주는데 오늘 문학예술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

선군령장숭배는 우리 시대 인간의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문학, 영화예술, 무대예술, 미술분야에서는 적후천리에서도 최고사령부를 우러러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절절히 부른 강연옥과 같은 열렬한 수령숭배자들의 형상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이 땅우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숭배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치게 하여야 한다. 음악예술분야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세계를 반영한 명곡들을 수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시대의 영웅들, 전형들을 진실하고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새, 선군시대결사관철투사들의 숨결이 맥박치는 작품들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군대와 발걸음을 함께 하는 시대의 영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높이 울리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변함없이 창작실천의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영화예술론≫, ≪주체문학론≫, ≪미술론≫, ≪음악예술론≫을 비롯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시대 문학예술창조의 백과전서적인 교과서이며 명작창작의 불멸의 대강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견결한 옹호자, 투철한 관철자가 되여야 하며 선군시대의 모든 작품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되게 하여야 한다.

종자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문예리론의 정수이다. 문학예술인들은 종자론을 창작과 형상창조에 철저히 구현하여 한편한편의 작품들이 씨앗이 똑바로 박히고 쇠소리가 나는 선군시대의 걸작들로 되게 하여야 한다.

1970년대에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던 그 정신, 그 정열로 창조활동을 벌려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수십일동안에 훌륭하게 영화로 옮기던 그때의 그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변함없이 구현해 나가야 한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일으키던 그때의 환희와 열정, 창작적흥분과 기백으로 창조활동을 다그쳐야 한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배낭을 메고 라남의 봉화가 타번지는 현실속에 몸을 푹 잠그고 무한한 열정과 패기로 창작활동을 벌려 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다. 대중속에서 나오고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는 문학예술의 생명력은 거대하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벅찬 투쟁과 생활속에서 대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평범한 군인들과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현실을 노래하는 시인, 작가, 음악가들이 많이 나오고 온 나라에 대중예술활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릴 때 선군시대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은 더욱 만발하고 강성대국건설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온 사회에 혁명적인 문화정서생활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살며 투쟁하는 모든 곳에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숭고한 조국애, 혁명적락관주의로 충만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강성대국건설시대에 사는 혁명가답게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글을 배우고 재능을 키운 창작가, 예술인들의 대부대가 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고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심장으로 받드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인들이 있어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앞길은 창창하다.

21세기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이 이 땅우에 더 높이, 더 힘차게, 더 장엄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 시대는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격동적인 시대로, 우리 조국은 번영하는 **김정일**강성대국으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모든 분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3회

림종수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7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 시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사상이론적 무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인 당은 사회의 정치적 생명체에서 중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정치 사상적 진지를 튼튼히 다져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이 무기력하고 그 영도체계가 마비되면 아무리 현대적이고 막강한 무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맥을 추지 못하며 사회주의가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이 동유럽나라들의 참변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입니다. 특히 국제공산주의의 역사는 수령의 대를 잇는 시기, 당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가 하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와 인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국상 후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무엇보다도 당을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잃으시였을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끼니도, 주무심도 다 잊고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나시며 주체83(1994)년 7월 11일과 19일, 가야할 혁명의 앞길을 두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역사적인 담화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신 조건에서 장차 당, 국가, 군대의 영도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영도체계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가장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가장 충실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영도체계로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세워놓으신 당의 영도체계를 새로운 현실적 조건에 맞게 더욱 튼튼히 세우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당의 영도체계를 튼튼히 다지어 우리 당건설과당 사업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깊이 마음을 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날로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에 대처하여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당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4(1995)년 7월 2일 당의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혁명적 규율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안에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받드는 강한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일심단결이자 강한 혁명적 규율이라고 거듭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을 강화하자면 혁명적 규율을 세우는 것과 함께 일군들이 영도자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어야 한다, 일꾼들이 영도자에게 매혹되어야 혁명적 자각이 높아지고 규율도 철저히 지킬 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영도자에 대한 매혹과 혁명적 규율의 융합, 이것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사에서 새롭게 천명된 사상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사상에는 당의 규율이 높은 요구성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지만 그 요구성이 영도자에 대한 인간적 매혹과 숭배심에 의해 진심으로 간수될 때 가장 자각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된다는 진리를 담고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 규율이 중앙집권제의 원칙의 요구나 당 규약상 규범의 요구에 머무르는 승리적인 규율이 아니라 영도자에 대한 끝없는 숭배의 감정에서 우러나와 의리로 지켜지는 숭고한 경지에 이른 규율로 되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가 체현되여 있습니다. 이처럼 심금을 울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가르치심과 현명하고 정력적인 영도로 하여 우리 당의 영도체계는 강철같은 규율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후 주체84(1995)년 10월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발표하시여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당건설 지침을 펼쳐주시고 당의 영도체계를 튼튼히 다지고 혁명적 규율을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렇듯 현명하고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더욱 철저히 서고 그에 따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본성을 순결하게 고수하면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향도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우리 당을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국상 이후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당이 참다운 어머니당으로서의 자기 본성을 더욱 철저히 견지하도록 당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1990년대 초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불멸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일꾼들이 그 구호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려면 간부들과 당원들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해서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키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2월 17일, 일꾼들에게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며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언제나 인민의 지지를 받아 가시며 오늘도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다, 나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 이상의 큰 보람과 행복, 더욱 큰 힘은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을 가장 큰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시고 거기에는 더없이 큰 힘을 얻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적 풍모를 새기며 일꾼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거듭 들려주신 가르치심들은 자신의 마음처럼 일꾼들 모두가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참다운 충복으로 한 생을 살며 투쟁하기를 바라시고 하신 강렬한 호소이시였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영도체계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가장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가장 충실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영도체계로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설날에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인민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인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우리 당의 본성적 요구이라고, 그런데 당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일꾼들 속에서 당의 구호를 말로만 외우고 실지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당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에도 인민들이 어려움이 겪는 때일수록 인민들에 더욱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체87(1998)년 새해 정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1월 16일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도안의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도당 책임일꾼은 인민들이 장군님께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성의껏 꾸려놓은 숙소에서 점심식사도 하시고 회식도 하시였으면 하는 간절 소원을 말씀 올리였습니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곳에 가볼 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며 받들어 주는 인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신께서는 더욱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 가시는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적 복무정신은 저 하늘과 같이 끝이 없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후 주체87(1998)년 12월 9일에도 일꾼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인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해놓는 데 있는 것이지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전해들은 온 나라 당 일꾼들은 그이의 뜻을 받들어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살려는 불같은 결의를 안고 분발해 나섰으며 그런 속에서 자기 단위의 인민생활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일꾼들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자강도치고도 산골 군인 장강군당의 책임일꾼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계속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안의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자기 몸과 마음으로 다 바쳐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습니다.

주체89(2000)년 8월 29일, 장강군을 현지지도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장강군에 여러 번 와보았는데 올 때마다 군의 면모가 계속 달라진다고 하시면서 군당 책임비서가 일 잘하는 책임비서라고 높이 치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런 인민의 충복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일꾼들의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그이의 현명한 영도와 우리 당의 인덕 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의 과시로 됩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일꾼들을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간부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인민이 한없이 따르는 참다운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 시키시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교육학생연대, 교육재정 확충 교육시장화 저지 요구

대학생 3백여명, 개강시위… ≪등록금 인상반대≫

지난 해 12월부터 2002년 등록금 인상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공동기자회견, 교육부 면담, 집회 등 전국 각 대학의 공동연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교육학생연대 주최로 교육의 시장화 저지 및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대학생 대표자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먼저 교육학생연대 상임대표 서울대 구정모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 △교육 시장화 저지 등을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본격화되고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10여년 간 126%의 대학 등록금 인상이 있었다≫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당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서총련 임시의장 광운대 정종성 총학생회장은 ≪현재 사립 대학을 살펴보면 인건비, 건물 신축, 증축 비용 등은 명확히 재단에서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재단 수익용 자산의 80%를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어떤 사립 재단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립 대학 재정 운영을 비판했으며 ≪교육부는 각종 시행령을 통해 교묘하게 사립 대학이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정부 당국도 함께 비판했다.

한편 국 · 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및 민영화와 관련하여 서울산업대 김경진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이면에는 사실상 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책무를 방기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를 부담지우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교육부의 국립대 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전문대 등록금 인상과 차별화 정책과 관련하여 인덕대학 동아리연합회 배훈 회장은 ≪정부의 전문대 차별화 정책과 지원은 전문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비리사학과 교육부의 유착관계는 전문대학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했다.

덧붙여 교육학생연대는 2002년 상반기 동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7일 ≪교육 시장과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 2002년 교육/학자투쟁 승리를 위한 개강 투쟁 선포식 △3월 22일 2002년 새내기 문화제 △3월 29일 전국 청년학생 총궐기 △전국 50여개 대학 등록금 납부 연기 △사이버 시위 △3월 19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경, 연세대에서는 한총련, 전학협, 연대회의를 비롯한 교육학생연대 소속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등록금 인상 저지 · 교육 재정 확충 · WTO 교육 개방 반대 · 교육 시장화 저지 · 교육 공공성 쟁취 2002년 교육학자투쟁 승리를 위한 개강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먼저 연세대 윤수진 총학생회장은 ≪교육의 문제는 한 학교에만 국한 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학생연대를 중심으로 정권에 맞서 교육의 시장화 저지 등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투쟁 해 나갈 것이다≫고 밝힌 후 ≪개강을 맞이 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자치 기구들이 새내기와 함께 대학다운 대학,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성대 김유나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에서 올해 국립대를 비롯해 대학을 자율화 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를 비롯,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을 전개하면서 학교측도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것을 지양, 함께 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육이 더 이상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 부문답게 함께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학생연대 대표 서울대 구정모 총학생회장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전국 대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물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 교육 시장화 저지 · 교육 개방을 반대하고,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힘찬 투쟁도 전개하겠다 ≪라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연세대에서 홍익대까지 거리 선전전을 진행한 이들은 홍익대에서 간단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총련 임시의장 광운대 정종성 총학생회장은 ≪교육 시장화와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50여개 학교에서 공동으로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집회를 계기로 이후 열심히 투쟁해 오는 29일 있을 집회에서 이런 성과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새내기들의 재기발랄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 산업대 새내기들은 조금은 쑥스럽고 낯설지만 ≪바위처럼≫에 맞춰 몸짓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처음 이같은 집회에 참여한 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다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건국대 새내기 송경진씨는 ≪아직 잘 모르지만, 배워가며 대중적으로 투쟁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참여해서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다≫고 짧막한 소감을 전했다.

김성헌/김장효숙기자
유뉴스 2002/03/08일

F-15K 도입은 짜고치는 고스톱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이미 F-15K를 선정해 놓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오후 2시 삼각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민주노동당, 자통협, 사회당, 실천연대, 전노련, 천정연, 평통사 주최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중단, 국방부 압력 행사 규탄, F-15K 전투기 도입 반대≫를 위한 국방부 앞 집회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정치연설을 통해 ≪국방부가 F-15K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평가기준에 한미연합작전을 추가한 ≪2단계 평가방안≫과 평가기준 변경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타당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서경원 평통사 공동대표는 ≪옛 말에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국방부의 모습은 꼭 그 모습≫이라고 꼬집은 뒤 ≪평가기준 변경과, 평가결과의 발표를 연기한 것은 F-15K 도입을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며 F-X사업에 대해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서경원 공동대표는 ≪국방장관이 경제원리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이라며 ≪한반도에 전쟁위협을 부추키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최측은 결의문을 통해 ≪군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F-15K를 선정할 경우 전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한 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중단 △국방장관 사퇴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이후 계속적인 농성과 1인시위, 국방장관 면담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08

평양이 먼저 제네바합의 파기 안해

이북이 북-미 제네바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영 중앙통신의 5일 기사가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많은 언론에서 중앙통신의 기사를 이북 제네바 합의 파기 경고 혹은 가능성 시사 등으로 제목을 달고 있다. 다만 정부 당국에서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차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통신 보도를 볼 때 이북이 겨냥한 것은 제네바 합의 파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합의 이행을 역행한다고 판단하는 ≪부시정부와 그 추종세력≫이다.

통신은 최근 미 의회에서 주한 미 사령관 등 관련 고위인사들의 제네바합의 파기 혹은 경수로 건설 중단 주장을 간접 언급하면서, 그런 주장들이 ≪부시정부와 국회의 공식적 입장과 견해를 반영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물론 통신은 ≪현부쉬행정부와 공화당의 강경보수세력들이 기본합의문의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측의 그런 태도를 비난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통신은 제네바 합의가 양국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주는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북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성의있는 관계개선 요구의 뜻

반면에 ≪미국(부시 정부를 지칭)의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태도와 립장으로 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의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북만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 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북이 말하는 ≪우리 식≫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대목이, 이북이 먼저 또는 의도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것임을 시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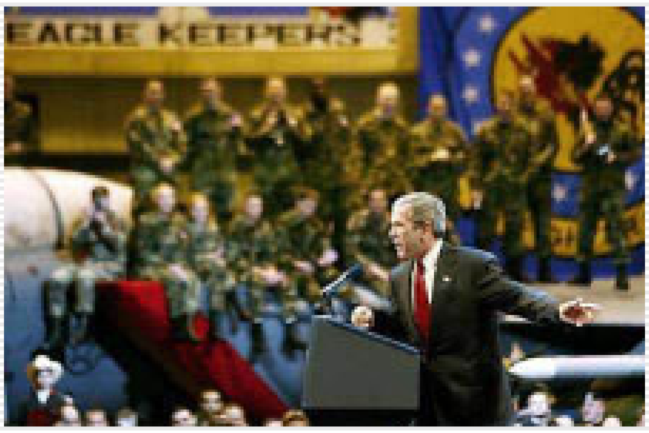
이런 판단은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미대화는 반드시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이북의 입장은 부시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양자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현재 이북은 IT산업 발전 및 농업생산 향상 등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 및 대외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동남아 순방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그리고 이북은 클린턴 정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북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관계개선을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보하고 있다. 중앙통신에 나타난 이북의 입장은 미 부시 정부가 과거 정부의 대북 합의 및 협상을 계승해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라는 메시지이다. 동시에 이북의 최고지도부와 제도를 비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대화 운운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북의 입장에서는 부시 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지속하는 것에 인내심의 한계를 시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북의 현재 국가 능력과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이북이 스스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북이 우리식 대로 가겠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발전전략과 남북대화, 중국 · 러시아 및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등 체제 생존을 위한 다른 길이 많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보혁기자
통일뉴스 2002/03/08

미군기지반환촉구 연대집회

- **일시 및 장소 :** 3월 9일(토), 오후 2시, 전쟁기념관 정문 -> 용산 가족공원
- **주최 :** (가) LPP 관련 공동대응 수도권 대책모임(용산, 의정부, 송파, 부평, 수원, 평택, 성남 등)
- **본 집회**
  1) 민중의례
  2) 대회사
  3) 지역별 투쟁경과 보고
  4) 문예 공연
  5) 규탄연설
     굴욕적 협상 김대중 정권 규탄
     민족주권 유린 미국 규탄
  6) 문예 공연
  7) 공개 요구서한 낭독

발전노조 파업에 연대를 조직하자

발전파업이 오늘로 12일 째 접어들었다. 2월말 공공 3사 연대파업으로 시작된 사유화 반대 투쟁이 두개 사업장의 파업 종결에도 흔들림없이 지속된 발전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더 한층 뜨거운 전국적 초점이 되었다.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전체 국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이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힘을 모은다면 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얼마든지 굴복시킬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이 사회의 모든 운동단체들이 발전파업에 연대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조직하는 일이다.

우리당은 지난 7차 중앙위 결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당원총력집중 청와대앞 집회를 개최했다. 그 밖에도 6일 가족대책위 집회에 대거 참가했고, 신문광고 조직, 사원아파트 근처에 파업지지 현수막 부착 등 일련의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발전파업이 승리할때까지 모든 당력을 동원하여 이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다음은 간략한 이후 투쟁일정이다.

당원동지들, 투쟁의 선봉에 서자. 그것이 당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할 것이다.

≪이후 일정≫

≪제 2차 민주노동당 총력집회≫
일시 : 3월 16일 (7차 중앙위 결정사항)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집회후 당대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민주노총 및 범대위 일정≫

≪전국 동시다발 집회≫
일시 : 3월 9일(토) 14시
주최 : 민주노총

≪KBS 1TV 심야토론≫
일시 : 3월 9일(토) 11시
주제 : 발전소 매각에 대하여

≪발전소 매각 저지,
발전산업노조 파업투쟁 승리,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 3월 10일(일) 13시
장소 : 종묘공원(이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범국민대책위
주관 :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2002/03/08]

민주노동당

2012년에 제1야당 된다

2004년 원내진입, 2008년 교섭단체, 2012년 제1야당

1면에서 계속

언론이 민주노동당을 ≪소외≫시키는 데 대한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요즘 언론사의 특정후보지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보도태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사석에서 야당 총재를 칭송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언론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론이 나서서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를 구분해 줘야 합니다. 언론도 말로는 ≪정치개혁≫을 떠들고 있는데, 만일 지지율을 핑계삼아 ≪진보≫를 외면한다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대표님은 현재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보수≫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봅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원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기능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방향제시를 해주려고 한다면, 관점이 다른, 보수와 진보의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을 해야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진보 대보수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노무현, 김근태가 이회창과 차별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회창과 노무현, 김근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김근태와 권영길의 차이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회창과 노무현의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진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IMF가 요구한 신자유주의 핵심요소, 즉 일방적 금융개방, 공기업 사기업화(민영화)와 알짜기업의 해외매각 이른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표현되는 ≪대량해고≫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김근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모두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IMF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김대중정부의 역사적인 과오는 IMF요구사항을 무비판적으로, 흔쾌히,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부도상태에서 거부하긴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과도하게 수용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고, 95%를 희생시켜 5%를 살리는 사회를 만들었습다. 그래서 역사적 과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총재와는 달리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김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지상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일산 자택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핵심인물인 조지 소로스를 만나 그가 건의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소로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MF는 한국에 너무 과도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세계화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김대중정부가 얼마나 과도하게 수용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민주노동당이 집권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한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일자리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만 해고시킨다고 위기가 수습됩니까? 대량 해고를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의 벤츠공장에서는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해고 없이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경우 어땠습니까. 김우중회장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전용하고, 빼돌리고 했잖아요. 정치권에 갖다 바치기도 했구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대우자동차가 망했을까요? 이런 것만 없었어도 대우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대량해고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경제위기를 수습하려면 우리는 대량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구조개혁≫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황제식 재벌경영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IMF사태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의 핵심 기준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김대중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이 나라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로지 신자유주의의 잣대로만 ≪진보 대 보수≫를 나누는 것이 옳은 걸까요?

신자유주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재벌체제 해체에 대한 입장도 분명해야죠.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주의자라고 평가해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일 계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말>지 3월호 중에서)

민주노동당 2002년 정기당대회 소집

일 시 : 2002년 3월 16일(토요일)
장 소 :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의 제 : 2001년 사업 보고 승인의 건
2001년 결산 감사보고 승인의 건
당헌 개정의 건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2002년 사업계획안 심의의
2002년 예산안 심의의 건
2002년 양대 선거에 관한 건
재 창당에 관한 건
당 대표단 선출의 건
지방선거후보 인준의 건

[당대표 후보]

기호1번
권 영 길

기호2번
정 윤 광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4)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59호)

≪**오 일 :** . . . 각계 민중은 부쉬의 이같은 전쟁광기를 더이상 보고만 있거나 용납할수가 없어 반미투쟁에 분연히 일떠섰던 거예요. 악의 축이라는 부쉬의 망언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인 1월 31일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변,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전농, 민언련, 민교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대표들은 주한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과 공개서한전달식을 갖고 부쉬의 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단호히 규탄배격했어요.

그들은 서한에서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규탄했고 전쟁광신자 부쉬의 방한을 결사반대한다고 했어요.

. .

오 일 : 이번에 격렬하게 벌어진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은 세계적 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각계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각계층과 사회단체 전지역을 포괄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되고 조직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반미운동이 한총련을 비롯한 운동단체들 중심으로 전개돼 왔죠. 하지만 오늘엔 반미투쟁이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개됐어요. 이번에 벌어진 반부쉬반미투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노동자농민단체, 청년학생조직과 종교단체, 각 시민단체, 사회단체들,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등 모든 단체들이 적극 참가했어요. 이번처럼 각계 민중, 각 단체가 대중적으로 반미투쟁에 동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고 숭미공미사상에 물젖었던 사람들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부쉬투쟁에 적극 참가했고 정계내에서도 부쉬의 망언을 규탄하면서 부쉬의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거죠.

. . .

오 일 : 그렇죠. 물론 지난 시기에도 반미투쟁단체들과 조직들이 결성되고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긴 했지만 그것은 규모도 작았고 투쟁도 제한성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벌어진 반미투쟁은 조직화측면과 단결력에 있어서 종전에 비할바없이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600여개의 사회단체들은 부쉬정권의 전쟁책동을 반대해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을 결성했고 이번에 부쉬의 망언과 부쉬의 한국행각을 반대해 조직적으로 맞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3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부쉬의 행각을 규탄했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330여개의 단체가, 서울에서는 297개 단체들이 연합해 부쉬의 망언과 한국행각을 반대해 투쟁해 나섰어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문예인, 시민단체성원 등 각계층 민주인사들이 참가한 700인 평화선언문발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1만여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부쉬방한반대 범국민대회 등은 반부쉬반미투쟁의 조직화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 . .

오 일 : 그래요. 종전에도 반미투쟁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불공평한 한미행정협정폐기,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민간인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등을 요구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여왔어요. 그러나 형식과 방법에서는 가두시위, 집회, 서명운동, 성명서발표 등에 치우쳤어요. 그러나 이번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부쉬행각을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도처에 내걸었고 부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발표, 격문, 성명서, 논문발표, 기습시위,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 주한미대사관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위, 미대사관에 오물투척, 단식투쟁, 성조기화형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였고 격렬성에서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쉬행각노정을 따라가며 항의투쟁도 벌였어요.

. . .

오 일 : 지금까지 반미구호들이 많이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부쉬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구호가 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부쉬는 악의 화신≫, ≪미국은 악의 본축≫, ≪미국은 악마의 제왕≫, ≪부쉬는 제발로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등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 후련한 그런 구호들이 각계층 민중속에서 울려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수반들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할때에는 공항에서 환영군중이 나오고 방문노정에는 환영인파로 붐비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지만 이번에 부쉬는 한국행각시 도둑고양이 기어들듯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부쉬는 부랴부랴 헬기로 서울로 향했고 우리 국민들앞에는 얼굴 한번 드러내지 못했어요. 부쉬는 우리 민중의 항거에 부딪혀 안절부절 못하다가 줄행랑을 쳤는데요. 이것은 우리 민중의 반미기운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준거라고 봅니다.≫(거세게 일고 있는 반부쉬반미열풍, 구국의소리 2002 3 1 – 3 3)

＊이하 참고자료

≪그런 까닭에 민족민주전선의 반미투쟁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남측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의 비법성과 야만

➡

광고

6.15주간

제37호 (3.1~3.7)

노작
현 시기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특집1 - 부시와 이회창, 6.15선언 파괴자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북측대표단 성명
미국과 이남 반통일세력 금강산행사 파괴
미국 대북강경정책 추종 리회창 망발 규탄
체제 ≪변경≫ 운운 상식밖의 추태
미국의 기만적인 ≪대화≫타령
조미기본합의문 일방적 구속되지 않을 것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왜 무산되었나
악의 본축을 단죄한다
특등매국노의 궤변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
거세게 일고 있는 반부시반미열풍
한미합동군사훈련 진행
민족공동행사 무산에 대한 통일연대 논평
북 제네바협정 파국 경고 논평

특집2 - 민족반역자의 망령, 민족의 이름으로 청소하자
반외세 민족자주 기치 더높이 들고 나가자
여야의원 ≪친일 708명≫ 명단발표
조선・동아의 후안무치
네티즌 대부분 ≪친일청산≫하자
친일파와 친미파

한국민족민주전선
2월 16일 경축행사에 관한 공보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할 10가지 이유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보도집1≫을 발간하며
≪반부시반미문헌집1≫을 발간하며

6.15공동선언실현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KNCC, 북 ≪아리랑 축전≫ 참관단 모집

주한미군철수
F-15, 미국은 강매하고 국방부는 맹종하고
젊은 세대의 반미독립운동

반통일세력단죄규탄
부질없는 시비질
언론탄압자의 언론탄압설
한나라당은 광란의 파시스트들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한총련 합법화 투쟁 더욱 힘있게
한총련세대 홈페이지 개통

민중연대 노동자의 요구 관철돼야

연단 운동의 대중화를 생각해본다

성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그들이 미군철거투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미군범죄문제, 매향리폭격장을 비롯한 미군기지문제, 조선전쟁 중에 자행된 양민학살문제, 미국산무기강매문제, 주둔군지위협정문제 등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군이 대중투쟁의 위력에 질린 나머지 주둔기지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최성원 2001 5)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 따르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은 마땅히 반미자주화를 강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위업은 반미자주화운동을 통하여 실현되어 가는 위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역통일전선도 반미자주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측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에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조직들만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관변단체, 보수단체, 시민단체들까지 총집결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들고 나오는 경우, 중간세력들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선으로 형성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마땅히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이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한 것은, 반미자주화의 강령 대신에 6.15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통일전선이 6.15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여 형성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전선 안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이 장차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승 ·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통일전선을 상승 · 발전시킴으로써 그 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강령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지역통일전선의 강령과 민족민주전선의 통일강령 사이의 구분이나 민족통일전선의 강령과 민족민주전선의 통일강령 사이의 구분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그때까지 존재하는 전술단위의 전선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혼동하거나, 또는 전략은 알지 못하고 전술적 투쟁에만 매달린다거나, 또는 전술은 알지 못하고 전략적 구호만을 외치면서 동력을 전략적 투쟁으로 집중시킨다면, 현실이 제기하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대세력과의 투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통일전선에 관하여 우리들이 설명하였던 내용은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운동의 전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축이 반미자주화운동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다양한 전술은 알지 못하고 전략적 구호만을 들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미자주화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불변의 전략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문제는 반미자주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여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술적 투쟁을 능숙하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전술문제를 소홀히 대하여 전술적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는 운동의 주체가, 전술이 없는 전략적 투쟁만을 조직하면서 자신이 마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관주의의 오류입니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과 전술은 조성된 혁명정세와 통일정세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전략과 전술, 조국통일운동의 전략과 전술과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6.15공동선언의 제1항에는 민족자주의 과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15공동선언은 그 과업을 반미자주화의 과업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미자주화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남측의 친미예속정권을 견인하여 6.15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했으므로 그러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6.15공동선언에 제시된 민족자주의 과업은 반미자주화의 과업을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어도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 불변의 전략적 과업입니다.

지역통일전선도 친미예속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남측의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을 6.15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결집시키는 전선이므로, 현재의 조건에서는 민족자주의 과업을 반미자주화의 과업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반미자주화의 과업은 지금 주한미군철수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데, 현 단계에서는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이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으로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추진한다면 그 전선에 포괄되는 역량의 범위는 민족민주운동의 범위로 좁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이 당면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은 남측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6.15공동선언을 기치를 들고나서되 차츰 반미자주화의 기치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술적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치 지역통일전선이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포기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6.15의 호정세 속에서 반미자주화노선을 접고 부차적인 요구와 투쟁계기를 앞세울 대신, 반미자주화의 주공방향을 전면에 내걸고 모든 요구와 계기를 반미자주화로 집약시켜내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주장이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요구이지, 지역통일전선이 당면하고 있는 요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통일전선이 민족자주의 과업을 명시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선으로 형성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업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지역통일전선이 반미구국통일전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술적 조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과도한 문제설정입니다.≫(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최성원 2001 11 6)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은 남북 정부가 종전처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는 문제는 한 · 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므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민족통일기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여 마침내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 . .

한(조선)반도에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 · 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조선)반도의 반제전선은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는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며, 그로써 반제전선의 결정적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한(조선)반도에서 반제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확대 · 발전시켜 승리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목표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승리와 함께 실현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 . .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철퇴운동을 배치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은 주한미군을 철퇴하기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영도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반대 · 배격하여 친미예속체제 전반을 완전히 청산하는 총체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은 조미 정치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군사고문단을 배치하여 군사적 지배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고 있으려 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은 철군과 함께 저절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정치 · 경제적 분야에서의 투쟁, 사상 · 문화적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반미노동조합운동, 반미농민회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청년학생운동, 반미여성운동, 반미문예운동이 생겨나면서 반미자주화운동의 거센 기운이 남(한국) 전역에 넘쳐나야 한다.

. . .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정당 건설에 함께 해야 할 동반세력은 개혁세력이다.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보면, 친미예속세력과 개혁세력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친미예속세력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가 하면 개혁세력이 친미예속의 늪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고정불변의 친미예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조대상이 될 수 없다. 조미 정치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으로 강화 · 장성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상승되면,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그들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때문에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한호석 2001 9 18)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중심동력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보조동력은 남(한국)과 해외의 민족민주전선역량에서 나온다.

. . .

다음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 현 시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은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차적인, 당면한 투쟁은 남북해외의 반제자주역량이 힘을 합쳐 주한미군을 철퇴시킴으로써 조 · 미 관계와 한 · 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 당면투쟁에서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기존의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비적대적 관계로 바꾸고 그에 따라 남(한국)에서 미군을 철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조선)에 대한 적대 · 말살책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진배치해놓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첨병이며 동시에 남(한국)에 대한 지배 · 수탈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을 철퇴시키는 것은 북(조선)을 적대 · 말살하려 하고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된다.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나머지 물리력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현 단계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주한미군 철퇴운동에 자기의 동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조선)의 강력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자기를 적대 · 말살하려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첨병(주한미군)을 철퇴시키면 그것은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고, 그 물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친미예속체제는 자동적으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하며 그 체제에 의해서 육성되고 존속되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도 크게 약화 ·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반미자주화운동을 결정적인 승리국면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도 또한 분명해진다.≫(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한호석 2001 10 19)

(끝)